

## 흔적이론 서설

배 태 영

### ○머릿말

변형생성문법에 있어서 통사론과 의미론을 둘러싼 학설은 지금 크게 변화하고 있다. 변형생성문법 이론에 명확한 틀(framework)이 주어진 것은 Chomsky(1965), Katz and Postal(1964)에 있어서이며, 이 표준이론(standard theory)이라고 불리어지는 틀 속에서는 의미해석은 심층구조의 정보에 의해서만 행한다고 되어있다. 즉, 의미부문(semantic component)에의 입력(input)으로 되는 것은, 심층구조의 정보만이였다. 그러나 그 후에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서, 부정요소(negative)와 한량사(quantifier)와에 관한 문제, 화제(topic)와 평언(comment)등, 심층구조의 정보만 가지고는 처리가 불가능하고, 아무래도 표면구조의 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면 올바른 의미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되고보니 심층구조의 정보만이 의미해석의 입력으로 된다고 하는 입장을 그대로 지키면서 심층구조에 대폭적인 변경을 가하느냐, 아니면, 위의 입장을 버리고 심층구조뿐만 아니라 표면구조의 정보도 의미해석의 입력으로 인정하느냐 하는 두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변형문법 이론은 크게 둘로 나뉘어졌다. 하나는 전자의 입장에 서서, 표준이론보다 더 추상적이고, 더 깊은 구조를 설정하는 McCawley, Lakoff, Postal 등에 의해 대표되는 생성의미론(generative semantics)이고, 다른 하나는, 후자의 입장에 서서, 심층구조와 표면구조가 다같이 의미해석의 입력으로 된다고 하는 Chomsky(1972)를 중심으로 하는 확대표준이론(extended standard theory), 또는, 해석의미론(interpretive semantics)이다.

Chomsky(1972)의 확대표준이론의 틀은, 심층구조에 있어서의 문법관계(grammatical relation)는, 의미해석에 관해서 종래와 같이 기본적인 것이며, 주제관계(thematic relation)를 결정하나, 의미의 기타의 면에서는 모두 표면구조에서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Fiengo(1974)는 흔적(trace)이라고 하는 사고방법을 사용하면, 심층구조에서만 행하여질 수 있었던 주제관계를 결정하는 정보를 표면구조에까지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것으로했다. 따라서 흔적을 사용하는 흔적이론(trace theory)의 틀에서는, 모든 의미해석은 표면구조에서 행해질 수 있는 것으로 된다. 나아가서 이 이론을 사용하면, 지금까지의 이론으로서는 일견 산발적인 것처럼 생각되었던, 통사규칙에 과해진 제약과 의미해석 규칙에 과해진 제약과는, 흔적을 매개로 사용함으로써, 통일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Fiengo(1974)는 예증하고 있다.

하나의 구조에만 의존해서 의미해석을 행한다고 하는 점에서는, 흔적이론은, 두개의 구조에 의존해서 의미해석을 행하는 확대표준이론보다도 더 바람직한 강력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구조에 의존한다고 하는 점에서는, 표준이론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었으나, 심층구조만으로서의 의미해석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이 들어난 현재, 흔적이론의 편이, 표준이론보다 경험적 타당성에 있어서 우수하다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하에서 이 흔적이론의 틀을 Fiengo(1974)를 중심으로 해서, 수시로 Chomsky(1975 a,b)를 참조하면서 소개하고, 왜 흔적이론을 들고 나오게 되었는가, 흔적이론의 어떤 점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보려고 한다.

## 1. Fiengo 의 흔적이론의 틀

변형생성문법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변형(transformation)이 연결체(string)의 의미·문법관계에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하는 경우 비문법적인 연결체가 생성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변형의 힘을 제한할 방법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데는 두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변형의 적용에 조건을 과하는 방법이다. 이것에는 변형의 구조기술(structural description)을 보다 복잡하게 하는 방법과 적어도 몇개의 변형에 맞는 보다 일반적인 조건을 설정하는 방법이 생각되어지나, 후자의 편이 훨씬 더 바람직한 것은 자명한 일이다. Chomsky(1973)<sup>1)</sup>의 指定主語條件(specified subject condition), 時制附補文條件(tensed S condition), 下接條件(subjacency condition)은 이 후자의 선에 따른, 변형의 적용에 과해지는 일반조건이다. 두가지 방법 중의 다른 하나는 변형의 출력(output)에 대하여 조건을 과하는 방법이다. Fiengo(1974)는, 흔적을 사용하여, 이동변형(movement transformation)의 출력에 대한 조건을 제안하고 있다.

Fiengo는 어떤 요소가 변형으로 이동되는 경우, 그것의 이동된 위치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관계에 주목한다. Fiengo(1974 : 25, 61)는 어떤 요소가 이동하는 경우, 그 요소는 이동 이전의 위치에 흔적(trace)을 남긴다고 말하고, 이동하는 요소가 명사인 경우에는, 표면구조에 있어서, 그 이동한 명사구는 항상 흔적의 왼편에 있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다.

### (1) The Rule of Proper Binding(Fiengo, 1974 : 89)

Trace is properly bound if NP binding trace precedes trace at surface structure.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어 있는 경우, 그 명사구의 흔적은 이동된 명사구에 의하여 적절히 속박되어 있다고 한다. 적절히 속박되어 있는 흔적만이 표면구조에 나타날 수 있으며, 적절히 속박되어 있지 않는 흔적을 포함하는 문장은 부적격문으로 취급한다. 적격문에 포함되는 흔적은 이동한 명사구의 이동이전의 위치를 보이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 흔적을 봄으로써, 그 명사구가 이동이전에, 즉, 보다 깊은 구조에서 담당하고 있던 주제관계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왜 Fiengo가 이동변형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가 하면, Fiengo 자신은 명확한 방법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몇가지 이유가 생각되어진다. 하나는, 어느 정도 분명한 일로서, 주제관계의 해석에 관해서, 구절구조규칙(phrase structure rule)에 의하여 파생한 명사구가 그 기능을 바꾸는 것은, 그 명사구에 명사구이동변형이 적용된 경우라고 하는 일

1) Chomsky(1973)에서는 specified subject condition은 변형의 적용에 관한 조건으로서 제안되어 있으나, Chomsky(1975b)에서는 표면구조에 있어서의 의미해석의 조건으로 취해지고 있다.

일 것이다. 나아가, 표면구조에서만 행하여질 수 있는 의미해석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있으므로, 표면구조에서 의미해석을 행한다고 하는 사실은 피할 수가 없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확대표준이론에 의하여 확인되어 있는 것과 같이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아가서 심층구조의 정보를 표면구조에까지 어떻게 해서 가지고 가서, 표면구조만으로 의미해석을 모두 행하도록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도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보다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론적 배경에는 전체규칙(global rules)<sup>2)</sup>의 도입을 피하고자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sup>3)</sup> 흔적이론의 틀에서는 어떤 파생단계의 구절구조는, 그 파생단계 이전의 정보를 흔적이론이라고 하는 형태로 항상 지니고 있는 셈이 되므로, 파생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을 필요로 하는 전체규칙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전체규칙을 도입할 경우에 일어나는 가능한 문법수의 증대라고 하는 문제도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으로 된다.

Fiengo(1974)의 흔적이론의 틀에서는, 이와 같은 방향을 따른 [문법을 구성하기 위해, 음형(sound form)이 지정되지 않는(unspecified) 세계의 요소,  $\Delta$ (delta),  $\star$ (star),  $t$ (trace)를 설정한다. 이들 중에서  $\Delta$ 와  $\star$ 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생성하지 않으면 안된다(예를들면, 후술하는 바와 같이, 수동문에 있어서 by가 일어나면, by 다음에 반드시  $\star$ 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을 제외한다면 '심층구조에서 자유로이 파생하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Delta$ 와  $\star$ 와는 구절구조규칙으로 파생되는 것으로 된다.  $\Delta$ 는 의미적으로 지정되어 있어, 그래야 할 조건을 충족시키면 표면구조에 나타나 일정한 의미해석을 받을 수가 있다. Fiengo (1974 : ch.4)는 종래 Gapping으로 설명해온 (2)와 같은 문장은  $\Delta$ 를 포함하는 (3)과 같은 형태로 되어있다고 하고, 이  $\Delta$ 를 해석하는 규칙에 관하여 상세히 논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이 이상 더 깊이 들어가지 않기로 한다.

(2) John Knows Smith, and Brown Harris.

(3) John Knows Smith, and Brown  $\Delta$  Harris.

이에 대하여  $\star$ 는 의미적으로 무지정(smentically unspecified)이며,  $\star$ 가 표면구조에 나타나 있는 문장은 반드시 부적격문으로 된다.  $t$ 는 흔적을 말하며, 심층구조에는 존재하지 않고, 어떤 요소가 이동함으로써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다. 흔적은 그것이 명사구의 흔적일 경우에는 표면구조에서 적절히 속박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조건은 있으나,  $\star$ 와는 달리 표면구조에 나타날 수가 있다. 의미의 지정에 관해서는, 흔적은  $\star$ 와 마찬가지로 무지정이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star$ 가 심층구조에서 파생하면서 표면구조에 나타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환언하면,  $\star$ 는 파생의 단계에서 일정한 요소에 의하여 환치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4)에서 파생되는 수동문을 생각해보기로 한다.

(4)  $\star$  was hit Cyrus<sup>4)</sup>

2) 전체규칙이란 어떤 파생단계에서의 최종의 구절구조(phrase structure)가 아니라, 이 최종의 구절구조를 포함하는 이미 파생된 구절구조 모두에 적용되는 규칙, 바꾸어 말하면, 일정한 규칙을 어떤 파생단계에서 적용하는 경우, 그 규칙의 적용에는, 그 파생단계에서는 사라지고 없는 그 파생단계 이전의 정보가 필요하게 된다고 하는 규칙을 말한다.

3) cf. Chomsky (1975 a), pp.117-18

4) 수동문의 be 동사에 관해서는 Fiengo는 심층구조에 존재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 Chomsky

(4)와 같은 형태가 그대로 아무런 변형을 받음이 없이 표면구조로서 파생된 경우, 그 문장은 ★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적격문으로 된다. 따라서 (5)와 같은 문장은 없는 것이다.

(5) \*Was hit Cyrus.

(4)에 명사구전치변형(NP-Preposing)이 적용되면, ★의 위치에 Cyrus가 이동되어서, ★가 지워지고, (4)의 Cyrus의 자리에 *t*(흔적)가 남게 되어 (4)는 (6)으로 된다.

(6) Cyrus was hit *t*.

(6)에서는 ★는 없어지고, *t*는 이동된 명사구 Cyrus의 오른쪽에 일어나고 있으므로, Cyrus에 의해 적절히 속박되어 있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6)은 적격문인 것으로 된다.

다음으로 (7)의 수동문의 파생을 생각해 보자.

(7) Fred was hit by John.

(7)은 (8)에서 파생한다고 Fiengo는 생각한다.

(8) John was hit Fred by ★

(8)에서의 파생을 생각해 보면, 먼저 명사구후치변형(NP-Postposing)에 의하여 John이 ★의 위치에 이동하고, (8)의 John의 위치에 *t*가 남는다

(9) *t* was hit Fred by John.

(9)의 형태가 표면구조에 나타난 경우, *t*는 명사구 John에 의해 적절히 속박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이유로 부적격문인 것으로 된다. 명사구후치변형이 적용되면, 명사구의 이동에 의하여 생긴 흔적은 항상 이동된 명사구의 왼쪽에 생기는 것으로 되므로, 적절히 속박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부적격문을 생기게 한다. 따라서 명사구후치변형이 적용된 문장이 적격문으로서 파생하려고 하면, 흔적이 표면구조에 있어서 적절히 속박되어 있으면 괜찮으므로 파생의 다음 단계에서, 말하자면, 명사구후치변형의 뒷처리를 위한 조작이 필요한 것이다. Fiengo는 이 조작으로서 명사구전치변형, 한정사기입변형(Determiner Spelling), there 삽입변형(there Insertion)의 셋을 생각하고 있다. 이동한 명사구의 흔적 *t*의 위치에 한정사(the 같은 것)를 기입하는 것이 한정사기입 변형이고, there를 삽입하는 것이 there 삽입변형이다. (9)에는 이 세계의 변형 중에서 명사구 전치변형이 적용되어서 Fred가 *t*의 위치에 이동되고, (9)의 Fred의 위치에는 흔적 *t*가 남게 되어 (10)의 문장이 파생하는 것으로 된다

(10) Fred was hit *t* by John.

(10)의 흔적 *t*는 Fred에 의하여 적절히 속박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10)은 적격문으로 된다. (6)–(10)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Fiengo가 제안한 흔적이론의 틀에서는 명사구이동변형에 의하여 이동되는 명사구의 이동장소는 ★이거나 *t*라고 하는 것으로 된다. ★는 이미

(1975a, ch.3, 1975 b, p.11)는 NP-Preposing에 의하여 수동문의 be가 도입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말한 바와 같이 구절구조규칙에 의하여 파생되는 것이다. *t*는 구절구조규칙에 의하여 파생된 명사구의 흔적이므로, *t*도 구절구조규칙에 의하여 근거가 부여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Fiengo의 이러한 사고방법은 Emonds(1976: 68)의 (11)에 보이는 바와 같은 구조보존변형(Structure-Preserving Transformation)이라고 하는 사고방법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1) Structure-Preserving Trans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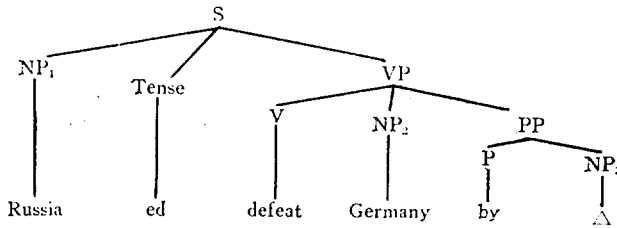
A transformational operation T that substitutes a node C that is a constituent of the same category is structure-preserving.

즉, 구조보존변형은 어떤 절점(node)(예를들어, NP)이 이동되는 새로운 절점이 독립된 근거를 가진(independently motivated)(즉, 다른 문장의 생성을 위해서 어차피 필요한) 구절구조규칙에 의하여 주어진 경우에 한하여 변형을 허용하는 규칙인 것이다. 수동변형을 예로 들기로 한다. 수동변형은 (12)의 두 문장을 관계지어준다.

- (12) a. Russia defeated Germany.
- b. Germany was defeated by Rus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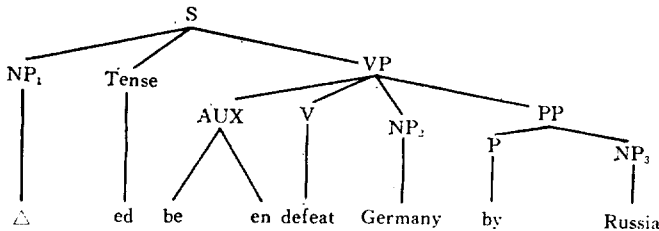
수동문(12b)는 기저구조(underlying structure) (13)에서 파생한다.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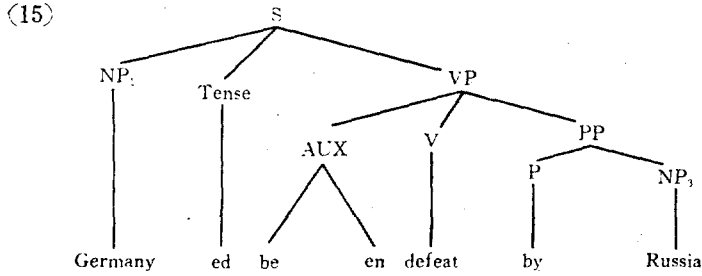


(13)에다 Chomsky(1970)에 제안되어 있는 바와 같이, 먼저 행위자후치변형(Agent-Postposing)이 적용되어 NP<sub>1</sub>의 Russia가 NP<sub>3</sub>의 위치에 이동되어서 (14)가 파생한다.

(14)



다음, (14)에 명사구전치변형이 적용되어 NP<sub>2</sub>의 Germany가 NP<sub>1</sub>의 위치에 이동되어서 (15)가 파생하고 최종적으로 (12b)가 파생된다.



이와같이 두개의 NP, Russia와 Germany는 독립된 근거를 가진 구절구조규칙에 의하여 주어진 NP의 위치에 이동되어 있다. 즉 (13)의 NP<sub>1</sub>인 Russia는 PP→P→NP라고 하는 구절구조규칙에 의하여 주어진 NP의 위치에, (13)의 NP<sub>2</sub>인 Germany는, S→NP-NP-Tense-VP라고 하는 구절구조규칙에 의해 주어진 NP의 위치에 각각 이동되고 있다.

Emonds의 이론과 Fiengo의 이론이 유사한 것은 there 구문에 있어서도 보여진다. 즉, Emonds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Fiengo에 있어서도, 후치된 명사구의 본자리에 다른 명사구를 전치하거나 삽입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다.

Fiengo가 Emonds와 다른 것은, 파생의 최종단계에서, Emonds의 틀에서는 명사구가 이동하면 본래의 위치는 사라지는데 대하여, Fiengo의 틀에서는 본래의 위치에 다른 요소가 이동되거나 삽입되지 않은 한 흔적이 남아있어, 그 흔적을 봄으로써 이동한 명사구의 이동 이전의 위치를 알게 되는 것이다.

## 2. Fiengo의 흔적이론의 이점

Fiengo가 제안하는 흔적이론의 이점에는, 이미 말한 표면구조라고 하는 하나의 구조에 의하여 의미해석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외에 우선 두가지를 더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어떤 변형이 수의적이냐 의무적이냐 하는 것을 개개의 경우에 관해서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통사론의 출력조건(output condition)을 규정할 때에 사용된 흔적을, 그대로의 형태로 의미해석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하에서 차례로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로 한다.

표준이론, 확대표준이론에서는 일정한 변형이 어떤 경우에는 의무적이고, 어떤 경우는 수의적이라고 하는 경우, 그것을 낱말이 말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예를들면, 명사구-전치변형은, 수동문을 파생할 경우는, 의무적으로 되고 수동명사구(passive nominal)를 파생할 경우에는 수의적으로 된다고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기로 하자. 구체적으로, 먼저 수동문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수동문 (16)의 기저에 있는 구조는 (17)인 것으로 생각된다.

(16) The city was destroyed by the enemy.

(17) The enemy destroyed the city.

(17)에 명사구 후치변형이 적용되어, (18)의 형태가 파생한다.

(18) destroyed the city by the enemy

(18)에 명사구전치변형이 적용되어 (16)이 파생되는 것이다. 이 경우 명사구 전치변형은 의

무적으로 된다.

다음 (19), (20)의 수동명사구의 파생을 생각해 보자.

(19) the city's destruction by the enemy

(20) the distruction of the city by the enemy

수동명사구(19), (20)의 기저에 있는 구조는 (21)인 것으로 생각된다.

(21) the enemy destruction the city

(21)에 명사구후치변형(및 of 삽입변형)이 적용되면 (20)이 파생된다. 여기까지는 수동문의 파생과 같다. 그러나 (20)에 명사구전치변형이 적용되어 (19)가 파생되는 경우, 명사구전치변형의 적용은 수동문의 경우와는 달리 수의적인 것이다. 이와같은 경우, 표준이론·확대표준이론에 있어서는, 명사구전치변형은 수동문의 경우에는 의무적이고, 수동명사구의 경우에는 수의적으로 된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흔적이론의 틀을 사용하면, 이러한 모양으로 의무적이니 수의적이니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이점이 있다.

즉, 흔적이론의 틀에서는 (16)의 수동문의 기저에 있는 구조는 (22)인 것으로 생각한다.

(22) The enemy was destroyed the city by ★

(22)에 명사구후치변형이 적용되어 (23)의 형태가 파생되고, (23)에 명사구전치변형이 적용되어 (16)의 문장이 파생하게 되는 것이다.

(23) t was destroyed the city by the enemy

이 경우에, (23)에 명사구전치변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대로 표면구조에 파생된다. (23)에서는 흔적이 이동된 명사구의 왼편에 있으므로, 그 흔적은 적절히 속박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되어 (23)의 형태는 자동적으로 부정격문인 것으로 된다.

다음 (19), (20)의 수동명사구의 파생을 흔적이론의 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그 기저에 있는 구조는 (24)인 것으로 생각된다.

(24)  $NP_{[DEF]}[NP_{[the\ enemy]}]_N[destruction\ the\ city\ by\ ★]$

(24)에 명사구후치변형이 적용되어 (25)가 파생한다.

(25)  $NP_{[DEF]}[NP_{[t]}]_N[destruction\ the\ city\ by\ the\ enemy]$

(25)에 명사구전치변형이 적용되면 (26)[=(19)]이 파생된다

(26)  $NP_{[DEF]}[the\ city's]_N[destruction\ t\ by\ the\ enemy]$

(25)에 명사구전치변형이 적용되지 않고 한정사기입변형(및 of삽입변형)이 적용되면 (27)[=(20)]이 파생된다.

(27)  $NP_{[DEF]}[the]_N[destruction\ of\ the\ city\ by\ the\ enemy]$

(25)가 그대로의 모양으로 표면구조에 나타나면, 흔적 t가 적절히 속박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이유로, (25)는 자동적으로 부정격으로 된다. 즉, 흔적이론의 틀에서는 흔적이 적절히

속박되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족하고, 일정의 변형이 의무적이냐 수의적이냐 하는 것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된다.

Fiengo의 흔적이론이 지금까지의 이론과 다른 점은, 이 흔적이 작용하는 일에 있는 것이다. 이 흔적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어떤 문장(또는 연결체<string>)의 통사적 적격성을 판정하는 출력조건(output condition)으로서 사용된다. 그리고 통사론에서 사용된 흔적은 그대로의 모양으로 의미해석의 경우에도 사용된다. 즉, 통사론의 출력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는 흔적은 의미해석의 입력(input)이 되어, 이동한 명사구가 심층구조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제관계(thematic relation)의 해석을 그 명사구에 부여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나아가서, 흔적을 포함하는 특정의 구조, 예를들면, 「be+과거분사+t」나 「seem+t+to VP」 등의 구조는 주어의 특질(property)을 지정한다(specify)고 하는 해석이 주어지는 것으로서, 이 특질 해석규칙(Property Interpretation)이 적용되는 구조의 지정에 흔적을 포함하는 구조가 사용 되는 것이다. 다음 (28)은 주어의 특질을 표시한다고 해석되어지는 구조에 「be+과거분사+t」라고 하는 수동의 구조가 포함되는 경우이다.

(28) The Trojans were defeated *t* by the Greeks.<sup>5)</sup>

특질해석규칙의 적용을 받는 또 하나의 구조로서 「seem+t+to VP」는 (29)에서 파생한 (30)의 경우를 말한다.

(29) ★ seems Xerxes to be ill

(30) Xerxes seems *t* to be ill.

(30)에서는 「seem+to VP」의 구조가 주어의 명사구의 지시물의 특질을 표시한다고 해석된다. 즉 Xerxes는 앓는다고 하는 특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흔적을 포함하고 있는 구조는 통사론, 의미론의 양쪽에 유효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된다.

### 3. Goldsmith의 원리

명사구이동변형에 의하여 남겨진 흔적이 모두 표면구조에 남겨져 있다고 한다면, 그 흔적을 봄으로써 그 흔적을 속박하고 있는 명사구의 주제관계를 표면구조의 정보만을 가지고 분명히 알 수가 있다. 그러나 흔적이 파생의 도중에서 지워져 버린다고 하는 경우를 이미 두 개의 예에서 보았다. 하나는 (9)의 명사구전치변형에 의하여 수동문 (10)을 파생하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25)에서 한정사기입변형에 의하여 수동명사구 (27)[=(20)]을 파생하는 경우였다.

다시 또 하나 흔적이 지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31)에서 그것에 대응하는 there구문 (32)를 파생하는 경우에 생긴다.

(31) A man is in the garden.

(32) There was a man in the garden.

5) (28)의 예는 수동문 중에서 상태를 표시하는(statal) 것으로 Fiengo의 주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나, 행위를 표시하는(actional) 다음 예는 어떨까?

(i) John was given *t* the book at noon.

(i)의 was given *t*가 John의 특질을 표시하고 있다고는 보통으로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Fiengo의 설은 이 점에 관하여 다소 수정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Fiengo는 (31)에 명사구 후치변형이 적용되어 (33)이 파생되고, (33)의 *t*의 위치에 *there*가 삽입되어 (32)가 파생된다고 말하고 있다.<sup>6)</sup>

(33) *t* was man in the garden

Fiengo의 틀에서 흔적이 지워진 것은 이 세가지 경우에 한한다고 말해도 좋으며, 흔적은 함부로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Chomsky(1975a : 115—16)는 의미관계의 복원가능성에 관한 Goldsmith의 원리(Goldsmith's principle of recoverability of semantic relation)라고 해서, 흔적이 지워지는 경우의 제한을 (34)와 같이 말하고 있다.

(34) Goldsmith's Principle of Recoverability of Semantic Relation:

A rule may erase a trace only if the element binding the trace appears in surface structure in a position that, identifies the semantic relation it bears.

(34)에서 「그것이 지니고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나타나 있는」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관계를 알 수 있는 그러한 형식적구조(formal structure)가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으로, (9) (10)에서는 John이 행위자(agent)인 것을 알리는 'by'구가, 그리고 (32)에서는 이동한 명사구 a man 이 동사 is의 주어였다고 하는 것을 보이는 'there is' 구조가 이 형식구조에 해당 하는 것으로 된다. (34)와 같은 제한을 명시적인 형식으로 말해둠으로써 표면구조만에 의하여 의미해석을 행할 수가 있는 것으로 된다.

#### 4. 왜 흔적은 오른쪽에 있어야 하는가?

Fiengo는 흔적이 적절히 속박되는 것은, 그것이 이동한 명사구의 오른쪽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무엇인가 근거가 있는 것일까? Fiengo(1974 : ch.3)는 이 조건은 (35)의 each other를 해석하는 상호대명사해석규칙(Reciprocal Interpretation)이나 (36)의 leave의 주어를 John이라고 해석하는 주어해석규칙(subject Interpretation) 등의 경우의 제한의 일부와 겹쳐지는 것이라고 논하고 있다.

(35) The men hit each other.

(36) John wanted to leave.

(35)의 경우, 해석을 받는 요소 each other가 해석을 부여하는 요소 the men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어, 이동한 명사구가 흔적을 적절히 속박하는 경우의 조건과 동일하다. Fiengo는 (35)에서 the man을 지배요소(overruler), each other를 피지배요소라고 부르고 있다. (35)와는 반대로, 피지배요소가 지배요소의 원편에 있는 (37)의 경우, 흔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적격문을 낳는 것으로 된다.

(37) \*Each other hit the mon.

(36)에도 (35)와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으며, 여기까지는 흔적은 항상 이동한 명사구가 새로 차지한 위치의 오른쪽에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 조건, 즉, 적절히 속박되어 있어야 한다

6) cf. Emonds(1976), pp.104—5

고 하는 조건과 일치한다.

다만 상호대명사해석규칙과 주어해석규칙의 경우에는 (38), (39)의 경우도 허용해야 하는 제한이 아니면 안된다.

- (38) Pictures of each other as criminals amused the candidates.  
 (39) Hitting Fred was mean of John.

(38)의 피지배요소 *each other*와 지배요소 *the candidates*와의 관계, (39)의 *hitting*의 주어와 그것의 지배요소 *John*과의 관계를 고려해 넣어서 이들의 해석규칙의 제한을 말하면, 그것은 (40)과 같이 된다고 *Fiengo*(1974 : 102)는 말하고 있다.

- (40) The Condition on Overrules:  
 If  $O_1$  overrules  $O_2$ ,  $O_1$  either precede  $O_2$ , or asymmetrically commands  $O_2$ .

여기에서  $O_1$ 은 지배요소를,  $O_2$ 는 피지배요소를 가리키며,  $O_2$ 는 그것과 동일지시적인  $O_1$ 에 후속하거나(예(35)), 또는, 선행하는 경우에는, 비대칭적으로 통어되는 경우에 동일지시적이라고 해석되는 것이다.

(40)의 제한과, 이동한 명사구가 흔적을 적절히 속박하는 경우의 조건과를 비교해 보면, 흔적에 관한 조건은 해석규칙의 제한 (40)의 전반부와 일치하는 것으로 된다. 즉, 이동된 명사구는 지배요소( $O_1$ )에 해당하고, 흔적은 피지배요소( $O_2$ )에 해당한다. 따라서 흔적에 관한 조건은 해석규칙의 제한 (40)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된다고 *Fiengo*는 말하고 있다.

## 5. 일견 문제점으로 생각되는 것

어떤 요소가 이동하는 경우, 흔적이론의 틀에서는 이동하는 요소는 흔적을 이동 이전의 위치에 남기고, 그 이동은 흔적을 속박하는 형태로 행하여진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동한 요소가 명사구일 경우에는, 표면구조에 있어서 이동한 명사구의 오른쪽에 흔적이 위치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흔적은 적절하게 속박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 *Fiengo*는 논하고 있음을 말했다. 이러한 틀의 이론에서는 다음 두가지의 경우가 일견문제점으로 된다고 생각된다.

- (41) 표면구조에 흔적이 두개 이상 나타나 있는 경우, 어느 흔적이 어느 요소의 것인지를 어떻게 해서 지정할 것인가?  
 (42) 표면구조에 있어서, 명사구의 흔적이 이동된 명사구의 왼쪽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흔적을 포함하는 문장이 적격문일 경우가 있을 것인가? 만일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설명될 것인가?

(41)에서 말한, 표면구조에 흔적이 두개 이상 나타나 있는 예로서는 (43)~(45)와 같은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다.

- (43) What did John give Mary *t* ?  
 (44) This theory was believed *t* by Fiengo *t* to have been supported *t* by Chomsky.  
 (45) What did John force *t* the men to each sign *t*?

(43)은 다음의 (46)에 To 여격교체변형(*To-Dative Shift*)이 적용되어 (47)이 파생되고,

잇달아 *what*가 문두에 이동되어 파생되기 때문에 흔적이 두개 남게 되는 것이다.

(46) John gave what to Mary?

(47) John gave Mary what *t*?

(44)는 (48)에서 파생되었다고 생각된다.

(48) Fiengo be-en believed ★ by ★ Chomsky to have be-en supported this theory by ★

먼저 (48)의 매입문(embedded S) 안에서 Chomsky가 후치되고, 이어서 *this theory*가 전치되어서 (49)가 파생된다.

(49) Fiengo be-en believed ★ by ★ this theory to have be-en supported *t* by Chomsky.

(49)에서 매입문의 주어의 위치에 있는 *this theory*가 주문의 목적어 자리인 ★의 위치에 이동하여 (50)이 파생된다.

(50) Fiengo be-en believed this theory by ★ *t* to have be-en supported *t* by Chomsky.

다시 (50)의 주문에 있어서 Fiengo가 후치되고, 이어서 (50)의 Fiengo의 위치에 *this theory*가 전치되면 (44)가 파생한다.

(45)는 (51)에 한량사이동변형(Quantifier Movement)이 적용되어서 (52)가 파생하고, 다시 *what*가 문두에 이동되어 파생된 것이다.

(51) John forced each of the men to sign what?

(52) John forced *t* the men to each sign what?

(43)–(45)에 왜 흔적이 두개 이상 나타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46)–(52)의 파생 단계를 거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된다. 이러한 경우, (41)에서 말한 어느 흔적이 어느 요소의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서 해결되는 것일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요소는 흔적을 속박하는 형태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말하자면 흔적은 미아(missing child)로 되는 일은 없다고 하는 것이다. 즉,  $NP_1 \dots NP_2 \dots t_2 \dots t_1$ 과 같이 지표를 붙이는 형태로 표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sup>7)</sup> 그렇게 되면 (41)에서 거론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된다. 다만 주의할 것은, 모든 흔적은 이동된 요소에 속박되어 있다고 하는 것파, 그것이 적절히 속박되어 있느냐 하는 것파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다. 예를들면, 이동한 명사구에 적절히 속박되어 있는 흔적은 반드시 이동한 명사구의 오른쪽에 있고, 나아가 이 조건이 적용되는 것은 파생단계에 있어서가 아니라, 표면구조에 있어서인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다음은 (42)에서 지적한 표면구조에 있어서 이동한 명사구의 원원에 흔적이 생기는 경우라도 그 문장이 적격문이라고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이 예로서는 다음의 (53), (54)의 의사분열문(pseudo-claft)을 생각할 수 있다.

(53) What John bought yesterday was *curtain*.

(54) The only person John admire is *himself*.

7) cf. Chomsky(1975b), p.10, 27

(53), (54)는 각각 (55), (56)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생각된다.<sup>8)</sup>

(55) [<sub>NP</sub> it [<sub>S</sub> John bought *curtain* yesterday]] was [<sub>PRD</sub>△]

(56) [<sub>NP</sub> the only person [<sub>S</sub> John admires *himself* I is [<sub>PRD</sub>△]

(53), (54)는 (55), (56)의 *curtain*과 *himself*가, 각각 *Predicate*의 위치에 이동되어 파생하는 것으로 각기의 명사구가 이동할 때에 남긴 흔적을 포함하는 형태는 (57), (58)과 같다.

(57) What John bought *t* yesterday was *curtain*.

(58) The only person John admires *t* is *himself*.

(57), (58)의 형태는 (38), (39)와 완전히 평행적인 구조이다. 즉, 흔적은 그것을 속박하는 명사구에 선행해 있어도, 그 명사구에 의하여 비대칭적으로 통어되어(asymmetrically commanded) 있으므로 적절히 속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고로, 흔적은 상호대명사해석규칙과 주어해석규칙의 제한에 과한 조건 (40)에 의하여 지배된다고 생각되며, 적정속박조건 (1)은 (59)와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59) The Rule of proper Bindin (Modifiedg Version):

Trace is properly bound only if NP binding trace either precedes or asymmetrically commands trace at surface structure.

(59)를 명사구의 흔적이 적절히 속박되어 있는 경우의 조건으로 생각하면, (57), (58)은 설명이 되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Fiengo*가 제안하고 있는, 흔적은 이동된 명사의 오른쪽에 있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조건은 너무 강력하므로 (59)와 같이 수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즉, *Chomsky*(1975a : 109)의 주장에도 있는 바와 같이, 이동한 명사구와 흔적과의 관계는, 대명사의 조응관계(anaphoric relation)에 있어서의 선행사와 대명사와의 관계와 평행적(parallel)이라고 하는 것이다.

다음 (60)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60) He gave *t* to John a book about calligraphy.

(60)은 *Fiengo*(1974 : 85)가 들고 있는 예이다. (60)은 (61)에 무거운 명사구이동규칙(Heavy NP Shift)이 적용된 문장으로, 이동된 명사구 a book about calligraphy의 왼쪽에 흔적이 위치하여 있고, 거기에 조건 (59)에도 저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격문으로 되어 있는 예이다.

(61) He gave a book about calligraphy to John.

*Fiengo*는, 무거운명사구이동규칙은, 그것의 적용제한을 규정할 때 이동하는 명사구의 길이에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6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동되는 명사구가 길면 길수록 용인가능성(acceptability)이 높다고 하는 사실을 들고 있다.

(62) I found *t* in the dictionary the word

{flaucinaucinihilipilification  
veeblefetzter  
amah }

8) cf. *Chomsky* (1973), pp.235-36

따라서 무거운명사구이동규칙은, Fiengo(1974 : 85)도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변형과는 구별해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Fiengo는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규칙은, 말하자면, 문법변형(grammatical transformation)이 아니라, 문체변형(stylistic transformation)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동된 명사구와 그것의 흔적과의 사이에 있는 관계에 대한 제한 (59)는 문법변형에 대해서만 과해지는 제약이고 (60), (62)와 같은 문체변형의 적용을 받은 문장에는 과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60), (62)는 당연히 제한 (59)의 위반례가 되지 않는 것으로 된다.

## 6. 흔적의 유용성

2에서 Fiengo의 흔적이론의 이점에 대하여 몇가지 언급했으나, 여기에서는 흔적의 유용성에 대하여 좀 더 살펴 보기로 한다. 흔적이론의 틀을 사용하면, 종래의 확대표준이론의 틀에서는 설명하기 곤란했거나, 임시방편의(ad hoc) 제한을 설정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었던 몇가지 문제를 훌륭하게 설명할 수가 있다. 여기에 몇가지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다.

첫째번 예로서 Chomsky(1975a : 99-100)가 들고 있는 (63), (64)의 대명사의 해석을 생각해 보자

(63) Who said Mary kissed him?

(64) Who did he say Mary kissed?

(63)의 who의 답으로 되는 사람과 him과는 동일지시적(coreferential) 해석을 받을 수가 있는데 반해서, (64)의 who의 답으로 되는 사람과 he와는 동일지시적 해석을 받을 수가 없다고 Chomsky는 말하고 있다. 단문(simple sentence)에서는, 대명사는 명사구의 오른 편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명사구와 동일지시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으로 되나, (64)에서는 who의 답으로 되는 자와 he와는 동일지시적 해석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지시적 해석을 받아도 괜찮다고 하는 것으로 되어 버린다.

(63), (64) 를 흔적을 사용하여 쓰면 (65), (66)과 같이 된다.

(65) Who [<sub>s</sub> t said Mary kissed him]

(66) Who [<sub>s</sub> he said Mary kissed t]

(65), (66)의 흔적(t)은 who의 흔적으로, 실제로는 구체적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장소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65), (66)의 해석은 (67), (68)의 해석과 평행적인 것으로 된다.

(67) John said Mary kissed him.

(68) He said Mary kissed John.

(67)에서는 John과 him과는 동일지시적 해석을 받을 수가 있는데 반하여, (68)에서 he와 John과는 동일지시적 해석을 받을 수가 없다. 이 사실은 (65), (66)의 흔적의 해석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다. 따라서, 종래의 확대표준이론에서는 특별한 해석규칙을 설정하지 않으면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던 (64)[=(66)]는, 흔적을 사용하면, 하등의 특별한 해석규칙을 설정할 필요없이, (67), (68)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대명사해석규칙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된다.

둘째로, Chomsky(1975a : 100—3)가 들고 있는 (69), (70)의 예를 생각해 보자.

(69)\* It seems to us that Bill likes each other.

(70)\* Tom seems to us to like each other.

(69)에서는 Bill이라고 하는 지정주어(specified subject)가 있으므로, Chomsky(1973)의 지정주어조건에 의하여, us와 each other와를 결부시키는 해석은 안된다. 이에 대하여, (70)에는 지정주어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us와 each other와를 결부시키는 해석은 지정주어 조건에 저촉되지 않으며, 따라서 그런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70)에 있어서 us와 each other와를 결부시켜서 해석할 수 없으며, (70)은 부정격문으로 된다.

흔적이론의 틀에서는 (70)은 (71)에서 파생되어 (72)의 형태로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71) ★ seems to us [<sub>s</sub> Tom like each other]

(72) Tom seems to us [<sub>s</sub> t like each other]

(72)의 흔적의 위치는 (69)의 지정주어 Bill의 위치와 평행적이다. 지금 Chomsky(1975a : 103)의 주장에 따라 흔적도 지정주어와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70[=(72)]은 특별한 임시방편의 조건을 설정하지 않고도 설명되는 것으로 된다.

세째번의 예로서 Chomsky(1975b : 25)가 들고 있는 (73)의 want to를 (74)의 wanna로 바꾸는 음운규칙을 생각해 보자.

(73) Who do you want to see?

(74) Who do you wanna see?

이 규칙은 (75), (76)에서 보는 바와 같이, want와 to 사이에 어떠한 요소가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75) Who do you want Bill to see?

(76) \*Who do you wanna Bill see?

그런데 (77)은 want와 to 사이에 아무런 요소도 개재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이 규칙을 적용해서 (78)을 파생시킬 수가 없다.

(77) Who do you want to see Bill?

(78) \*Who do you wanna see Bill?

(78)이 왜 부정격문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려면, 종래에는 (77)이 파생되기 이전의 (79)의 파생단계에서 who가 want와 to와의 사이에 끼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밖에 없었다. 즉, 이 규칙을 전체규칙(global rules)으로 생각하거나, 파생도중의 (79)의 단계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었다.

(79) You want [<sub>s</sub> who to see Bill]

그러나 이에 대하여 흔적이론의 틀에서는 (79)에서 파생된 (77)은 (80)의 형태로 되어 있다.

(80) Who do you want t to see Bill?

(80)에서는 want와 to 사이에 흔적이라고 하는 제로형태소(zero morpheme)<sup>9)</sup>가 생겨져 있으므로 이 규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표면구조의 정보만을 사용해서 설명되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73)과 같은 문장은 다음 (81), (82)의 두가지로 해석되는 모호한 문장으로, 흔적이란 장치를 사용해서 표시하면 (83), (84)처럼 그 해석이 각각 분명해진다.

- (73) Who do you want to see?  
 (81) You want [<sub>S</sub> to see who]  
 (82) You want [<sub>S</sub> who to see]  
 (83) Who do you want to see *t*? (underlying(81))  
 (84) Who do you want *t* to see? (underlying(82))

네째번으로 Lightfoot (1977 : 212—13)가 들고 있는 다음 예를 생각해 보자, want to가 wanna로 축약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use(d) to는 usta로 바뀌어질 수 있다. (Lightfoot(1977 : 210)는 이런 변형을 to-Adjunction <to 축약규칙>이라고 부른다.) 여기에서도 used와 to 사이의 자리로부터 어떤 NP가 이동되었을 경우에는 축약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85)에서는 축약이 가능하나, (86)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 (85) a. Tom used to meet Harry for lunch.  
 b. Tom usta meet Harry for lunch.  
 (86) a. What Tom used to take picture was a Nikon.  
 b. \*What Tom usta take picture was a Nikon.

(85)에서는 used와 to와의 사이의 자리로부터 이동되어 나간 것이 없는 반면에, (86)에서는 used와 to와의 사이의 자리로부터 a Nikon이 오른쪽으로 이동되었다. 다음(87a)에서도 to축약규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 (87) a. A Nikon was used to take a picture.  
 b. \*A Nikon was usta take a picture.  
 c.  $\Delta$  used a Nikon to take the picture.  
 d. A Nikon was used *t* to take the picture.

만약 변형규칙의 적용순위에 의하여 (87b)와 같은 파생을 막으려고 한다면, (87a)의 기저구조로 볼 수 있는 (87c)에 수동규칙을 적용하기 전에 to축약규칙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흔적이론을 이용하면 (87d)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규칙의 적용순위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다음 (88)—(90)의 예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for 보문표지는 많은 회귀동사(dsiderative verb)와 더불어 표면구조에 임의적으로 나타나거나, 동사와 for 사이에 부사가 끼어 들면 의무적으로 나타나지만, (91), (92)에서와 같이 인지동사(epistemic verb)는 표면 구조에 나타나지 않는다.

- (88) a. I would prefer (for) John to do it.  
 b. I would hate (for) John to do it.  
 (89) a. I want very much for John to come.

9) Chomsky(1975 b, p.25)는 흔적을 zero morpheme으로 생각하고 있다.

- b. \*I want very much John to come.
- (90) a. I would like very much for John to come.  
b. \*I would like very much John to come.
- (91) a. I believe (very much) John to be popular.  
b. \*I believe (very much) for John to be popular.
- (92) a. I expected (sincerely) John to have been elected.  
b. \*I expected (sincerely) for John to have been elected.

그런데 다음 (93)의 기저에 있는 구조인 (94)에서 보는 바와 같이, for보문표지는 want와 to 사이에 끼어 있으므로, 만약 (95)와 같은 형태를 파생하려고 하면 to축약규칙이 적용되기 전에 동일명사구삭제규칙(Equi NP Deletion)과 for보문표지삭제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 (93) They want to go college.  
(94) They want [<sub>S</sub> for them to go to college]  
(95) They wanna go college.

그러나 (66)과 같은 비문의 파생을 막기 위해서는 보문표지삭제규칙보다 먼저 수동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면 안된다.

- (96)\* John was  $\left. \begin{array}{l} \text{wanted} \\ \text{preferred} \\ \text{desired} \\ \text{hated} \end{array} \right\}$  to do it.

(96)의 기저에 있는 구조는 다음 (97)로 볼 수 있으므로,

- (87) [<sub>NF</sub>△] wanted [<sub>S</sub> for John to go to college]

그 구조기술이 NP-V-for-NP로 되어, 만약 수동규칙이 먼저 적용되면 수동구조기술인 NP-V-NP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96)과 같은 수동변형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sup>10)</sup>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보문표지삭제규칙은 to 축약규칙보다 먼저 적용되어야 하고, 수동규칙은 보문표지삭제규칙보다 먼저 적용되어야 하므로, 결국, 수동규칙은 to 축약규칙보다 먼저 적용되어야 되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87b)의 파생을 막기 위해서는 수동규칙을 적용하기 전에 to축약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 변형규칙 적용순위와 충돌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흔적이론을 이용하면 변형규칙의 적용순위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순도 생기지 않는다.

이 밖에 Chomsky(1972 : 156-57)는 총칭문(generic sentence)에 관한 일반화는 심층구조에 있어서 기술된다고 말했으나, Chomsky(1975b : 97-8)는 이 일반화는 흔적이론을 이용하면 표면구조에서 기술된다고 말하고 있다. 예를들면, (68), (99)에 관하여,

- (98) Beavers build dams.

10) cf.

- (i) John was  $\left. \begin{array}{l} \text{believed} \\ \text{expected} \\ \text{known} \end{array} \right\}$  to be popular.

여기에서는 그 기저에 수동변형을 막는 for가 없기 때문에 (i)과 같은 문의 파생이 가능한 것이다. (Lightfoot(1977), p. 213)



## (99) Dams are built by beavers.

이들 두개의 문장은, 의미관계에 관해서는 동일하나, 총칭성에 관한 해석은 표면구조의 주어가 관여하므로 서로가 다른 것으로 된다. 이러한 사실은 흔적이론을 이용함으로써 표면구조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즉, 다음 (100)에서 dams에 의하여 적절히 속박되어 있는 흔적 *t*에 의하여 dams는 build의 목적어이며, beavers는 그 주어라는 정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100) Dams are built *t* by beavers.

이상에서 말한 여러가지 유용성이 흔적이론에서는 왜 가능한 것일까? 위에서 든 예들은 어느것이든 일정한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그 파생단계 이전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예들이다. 확대표준이론에 있어서는, 변형이 그것이 적용되는 파생단계의 정보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용하는 일, 즉, 전체규칙의 도입은 인정되지 않았다. 전체규칙을 도입하는 것은 가능한 문법의 수를 증가시키는 결과가 되어 바람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흔적이론의 틀에서는 심층구조의 정보는 물론, 파생도중의 정보도 그 흔적이 가지고 다닌다는 형태로, 일정한 조건(34)하에 지워지는 흔적을 제외하면, 빠짐없이 표면구조에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흔적이론을 사용함으로써, 확대표준이론에서는 전체규칙의 도입을 생각하지 않고는 해석할 수 없었던 문제가, 남김없이 해석되는 것으로 되어 전체규칙의 도입이라고 하는 문제는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 7. 맺는 말

흔적이론이라고 하는 사고방법을 문법 안에 도입함으로써 변형문법의 틀이 어떠한 형태로 되는가 하는 것을 Chomsky(1975 a, b)를 참조하면서 Fiengo(1974)를 중심으로 좀 정리해 두고 그 전망을 살펴보기로 한다.

흔적이론의 틀에서는, 변형규칙이 어떤 구절(phrase) P를 X의 위치에서 Y의 위치에 이동할 때에 그 규칙은 X의 위치에 P에 의하여 속박되는 흔적을 남기는 것으로 되어 있다. (Chomsky, 1975a : 95). 이것은, 흔적은 속박변항(bound variable)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동한 명사구와 그 흔적과의 속박관계는, 이미 (59)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선행사와 대명사와의 조응관계(anaphoric relation)에 과하여지는 조건과 동일한 조건인 것이다. 이 조건은, 명사구이동변형에는 상승변형(rules of upgrading), 즉, 가장 상위의 문(root of the sentence)에 보다더 접근하는 방향으로 명사구가 이동하는 변형밖에 없으며, 하강변형(rules of downgrading), 즉, 매입(embeddedness)을 더 깊게 하는 방향으로 명사구를 이동하는 변형은 없다고 하는 Chomsky(1975a : 107)의 주장에 원칙적 설명을 부여함과 동시에 그 주장과 합치되는 것이다.

흔적이론의 틀에서는, 흔적을 사용함으로써, 의미해석은 모두 표면구조에서 행하여진다. 이것은, 심층구조가, 표준이론·확대표준이론에서 담당하고 있던, 의미해석규칙에의 입력이라고 하는 역할과 문법변형부분에의 입력이라고 하는 역할의 두 역할 중에서, 의미해석규칙의 입력이라고 하는 역할이 심층구조에는 없어어지며, 심층구조의 역할은 문법변형부분에의 입력이라고 하는 역할만으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같이 말하면, 종래의 심층구조라고 하는 개념은 필요없게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

는 의문이 생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분명히 Chomsky(1975a : 81-3)는 심층구조라고 부르는 것을 그만두고, 시발구절구조표지(initial phrase marker)라고 바꾸어 부르고 있으나, 이것은 심층구조가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시발구절구조표지는 여전히 의의있는 것으로, 본질의 해명에 이바지하는 특질을 가지고 있으며, 표준이론·확대표준이론과는 달리 의미해석에는 간접적인 형태이기는 하나, 의미해석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표면구조가 하는 역할의 중요성이 현저하게 커졌다고는 하지마는, 시발구절구조표지 없이는 표면구조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에, 시발구절구조표지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표현방법을 사용해도 마찬가지이다.

표면구조만에 의하여 의미해석을 한다고 하는 흔적이론의 주장에는 무언가 경험적인 타당성이 있는 것일까? 언어습득에 관해서 생각하면, 어린이들이 귀로 듣는 자료(data)는 심층구조가 아니라 표면구조라고 하는 경험적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바로「표면구조를 보면 모든 것을 안다」고 하는 흔적이론의 편이, 표준이론·확대표준이론에 비하여, 보다 타당한 이론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흔적은 어린이의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면구조에 의하여 의미해석이 되는 능력(즉, 흔적이론으로 말하면, 표면구조의 어디에 흔적이 나타나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능력)을 생리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 점에서는, 흔적이론은 표준이론·확대표준이론과 동일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흔적이론을, 흔적이라고 하는 이론적인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표면구조만으로 의미해석을 할 수 있게 된 이론이라고만 생각하면, 흔적이론은 별볼일없는 이론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언어이론으로서 바라볼 경우, 흔적이론은, 표준이론을 보강하기 위해 제안된 확대표준이론의 형태의 부족을 메꾸어주는 것으로서, 확대표준이론보다 발전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흔적이론의 틀을 사용함으로써 설명되는 새로이 발견된 사실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두개 이상의 명사구가 이동하는 경우의 제약, 이동한 명사구와 그것의 흔적과의 위치관계에 의하여 일반적 제약으로서 진술할 수 있을 것인가, 명사 이외의 요소, 예를들면, 형용사나 부사의 이동에 관해서도, 명사구의 이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속박조건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 등에 관하여, 흔적을 사용하는 형태로 형식화한다고 하는 해결이 주어진다고 하면, 흔적이론은 보다 더 알찬 이론이 될 것이다.

## References

- Chomsky, N. (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Mass.: M.I.T.
- \_\_\_\_\_. (1970). "Remarks on Nominalization." In Jacobs and Rosenbaum (eds.), *Readings in English Transformational Grammar*. Waltham, Mass: Ginn.
- \_\_\_\_\_. (1972). "Some Empirical Issues in the Theory of Transformational Grammar." In Chomsky, *Studies on Semantics in Generative Grammar*. The Hague: Mouton.
- \_\_\_\_\_. (1973). "Conditions on Transformations." In Anderson and Kiparsky (eds.), *A Festschrift for Morris Halle*.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_\_\_\_\_. (1975 a). *Reflections on Language*. New York: Pantheon.

- \_\_\_\_\_. (1974 b). "Conditions on Rules of Grammar." In R.W. Cole (ed.), *Current Issues in Linguistic Theory*. Bloomington & London: Indiana University Press.
- Emonds, J.E. (1979). *A Transformational Approach to English Syntax*. New York: Academic Press, Inc.
- Fiengo, R. (1974). *Semantic Conditions on Surface Structure*. Ph. D. Dissertation, M.I.T.
- Hooper, J.B. and S.A. Thompson (1973). "On the Applicability of Root Transformations." In *Linguistic Inquiry* 4 : 4. 465-97.
- Katz J. J. and P. M. Postal (1970). *An Integrated Theory of Linguistic Descriptions*. (Cambridge, Mass.: M.I.T.)
- Lightfoot, D. (1977). "On Trace and Condition on Rules" In Culicover, Wasow, and Akmajian (eds.), *Formal Syntax*. New York: Academic Press, Inc.
- 박병수. (1979). "해석의미론 해설," 「문법연구」 4. 문법연구회.
- 배태영. (1979). "심층구조의 의의 재고," 「영어교육」 18. 한국영어교육학회.

경희대학교

호텔경영전문대학